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과제

임정수*

요약_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 심화 현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민교육적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주요 종교들이 다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론의 장에 이들 종교들 간의 혹은 종교 내부의 갈등이 공론의 장에 오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이주민 유입의 급증은 한국 사회의 종교적 분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는 이슬람, 그리스정교, 라마불교와 같이 한국 사회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는 종교갈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 교육에서는 종교를 개인 심성 함양을 위한 주제에 한정시키거나 종교 갈등의 문제를 세계사적 문제나 해외의 사안으로만 보는 관점이 주가 되었다. 다문화시대의 시민교육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의 삶에서 차이에 대한 관용과 공존의 역할을 함양하는 것이다. 종교적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의 문제를 시민적 삶의 이슈로 다루고 종교적 관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_종교적 다양성, 종교 교육, 종교적 관용, 다문화 시민교육

1. 서론

종교는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장려하며, 개인의 인간관계나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있어 유대와 결속, 평화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만남이 국경, 인종, 문화, 계층의

* 서울대, 사회교육, withmyo@naver.com

분열과 맞물리면서 사회분열 및 국제분쟁을 초래하는 예를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역사가 오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아일랜드의 신교와 구교 간의 분쟁, 인도의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 간의 분쟁, 최근 유럽에서의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과 그로 인한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이상의 사례에 비할 때 우리나라의 종교 갈등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종교 갈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그것의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종교 상황은 세계 종교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적이다(안국진·유요한, 2010: 181). 류성민은 한국의 종교 분포에 대해 “동서양의 종교가 고루 공존하고, 외래종교와 자생종교가 함께 있으며, 그 어떤 종교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한 전형적 종교다원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1999: 109).

그러나 근래에는 낙태, 동성애, 안락사, 대북관계 등의 쟁점에서 종교가 여론 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행 및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종교가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Reynal-Querol(2002)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문화, 언어, 인종보다 종교의 갈등 유발 잠재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 언어, 인종은 중첩적인 멤버십이 가능하다. 즉, 어떤 사람이 인종적으로 아랍계 프랑스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경우에는, 두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경우는 드물다(전성표, 2007: 56 재인용). 즉, 중첩된 멤버십이 집단간 갈등의 완충제로 작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로 인한 갈등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갈등에 비해 타협이나 양보로 인한 해결이 어렵고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회통합이다. 종교가 사회적 균열, 나아가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된다면 교육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관용, 배려의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특히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의 다문화화 현상은 이러한 과제를 더욱 중대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사회 균열의 요인으로서 갖는 잠재력에 대해 검토하고 다문화교육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사회의 종교 다양성과 종교 인식

1) 한국 사회의 종교 분포와 다문화화의 영향

2005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종교 인구 분포는 표 1과 같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인구 중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9%였다. 지난 십여 년 사이 종교 인구는 2,450만여 명에서 2,150여 명으로 약 300만여 명 감소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주요 종교 중 신자 수가 증가한 것은 개신교와 대종교뿐이다. 전체 인구 중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19.7%로 종교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교는 15.5%, 천주교는 7.9%, 원불교가 0.2%, 유교가 0.2% 순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표 1. 종교 인구 분포

구분	2005년		2015년	
	인구(천 명)	비율(%)	인구(천 명)	비율(%)
총인구	46,352	100.0	49,052	100.0
종교 있음	24,526	52.9	21,554	43.9
불교	10,588	22.8	7,619	15.5
개신교	8,446	18.2	9,676	19.7
천주교	5,015	10.8	3,890	7.9
유교	129	0.3	84	0.2
원불교	104	0.2	76	0.2
대종교	45	0.1	66	0.1
천도교	4	0.0	3	0.0
기타	196	0.4	139	0.3
종교 없음	21,826	47.1	27,499	56.1

종교들이, 어느 종교도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다원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은 세계에서 아주 드문 경우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의 종교 분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3.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2000년 9월의 50만 명에 비해 네 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90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숫자 및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에 체류 외국인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1,481,503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중 74.%에 달하며, 이는 2000년의 219,962(44.8%)에서 약 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의 숫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가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 일상의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잠시 머물다 갈 여행객이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직장 동료로 더불어 살 사람들인 것이다.

표 2는 201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요 출신 국가별 분포와 해당 국가의 주요 종교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세계종교에 속하는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이 다수 종교로서 다원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이슬람, 힌두교, 라마불교 등 이질적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국가 출신이 적지 않다. 이처럼 국내 유입되는 이주민은 그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 사회가 접해 본 경험이 드문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표 2. 체류외국인의 출신국가별 분포와 국가별 주요 종교

구분	총 체류자(명)	주요 종교
총계	1,797,618	
중국(한국계 포함)	898,654	
미국	136,663	개신교, 가톨릭
베트남	129,973	불교
일본	49,152	
필리핀	53,538	가톨릭
타이	94,314	불교
몽골	24,561	라마불교
인도네시아	49,152	이슬람
타이완	31,200	
우즈베키스탄	43,852	이슬람
캐나다	24,353	개신교
스리랑카	26,057	불교, 힌두교
방글라데시	14,644	이슬람
파키스탄	11,209	이슬람
러시아	14,425	러시아정교
캄보디아	38,395	불교
네팔	26,790	힌두교, 불교
호주	12,468	개신교
인도	10,196	힌두교
영국	7,398	성공회
미얀마	15,921	불교
홍콩	10,762	
기타	81,6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44-45의 표를 법무부(2015)를 반영하여 수정

2) 종교 갈등 및 종교 인식

이주민에게 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47-49) 모국의 언어로 읽는 경전이나 사제의 설교, 익숙한 의례 등은 낯선 환경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준다.

또한 종교기관은 신자들의 결집 기회를 제공하여 종교공동체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종교공동체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 노하우나 취업 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준다. 더불어 종교는 가치의 혼란에 빠지기 쉬운 이주 생활에서 도덕 판단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가 사회적 통합과 안정의 순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종교적 실천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저해하거나 주류 집단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주류 사회나 기성의 다수 종교가 이주민의 종교를 낯설어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배척하는 경우 이는 이주민의 소외와 차별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 이주민들이 배타적인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주 사회에 대한 적응에 소극적이거나 나아가 거부하는 경우 이는 종교 집단간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 갈등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김중서, 2005: 92-93). 종교 집단 간(between religious groups) 갈등, 종교집단 내부(within a religious groups)의 갈등, 종교집단과 외부사회(between a religious group and the larger society)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인한 개인적 갈등을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전성표, 2007; 정순일·한내창, 1998).

학자들의 범주화와 사례 연구를 종합하여 종교 갈등의 양상을 정리하자면 표 3과 같다(이정덕·김미경, 1995; 정순일·한내창, 1998: 143-144; 전성표, 2007: 57-58; 안국진·유요한, 2010: 184-186). 종교간 갈등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집단과 집단,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개인 간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원인이 되는 갈등이다. 그러나 종교적 차이 자체가 곧 갈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거부할 때 발생한다. 종교 집단 내의 갈등은 단일 종교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제와 평신도간의 갈등이나 평신도들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종교 집단 간의 갈등

표 3. 종교갈등의 유형

구분	의미	사례
개인간 갈등	개인간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	- 특정 종교의 강요 및 거부로 인한 가족간, 친지간, 친구간, 부부간 갈등
종교집단 내부의 갈등	신념이나 교의의 해석을 둘러싼 같은 종교내의 갈등	- 기독교에서의 신·구 갈등, 불교에서의 대·소승 갈등 - 신도들간의 갈등 - 사제와 평신도간 갈등
종교집단 간의 갈등	자신의 종교를 고집하고 다른 종교를 배제하려하거나 차별함으로써 생기는 갈등	- 이슬람과 기독교간 갈등, 불교와 기독교간 갈등 -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과 힌두교간의 마찰로 인한 폭력·소요 사태 등
종교집단과 외부사회의 갈등	정치, 사회, 계급, 의료, 법체계 등의 외부 집단 및 제도와의 갈등	- 치료법을 둘러싼 종교계와 의료진과의 갈등 - 종교 관행에 대한 종교계와 여성단체의 갈등

은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갈등의 형식으로 현대의 종교다원화 사회에서는 특히 빈번해지고 두드러지고 있다. 종교 집단과 외부사회 간의 갈등에는 치료법을 둘러싼 종교계와 의료계와의 갈등이나 여성차별적 종교 관행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계와 여성단체 간의 논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 갈등이나 불안정의 원인을 이해 관계자의 심리적 특성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일례로 종교 갈등은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안국진·유요한(2010)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의해 특정 종교집단, 종교단체, 종교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 행위는 종교차별이 되어 사회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논란이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관여 및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차별 혹은 종교편향의 문제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종교적 다양성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한 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혹은 종교 외부의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갈등 발생 여부 혹은 그 양상이 달라진다. 종교 갈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다른 종교의 가치관이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이다. 이러

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양시키는 요인으로는 종교를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비본질적 종교성, 종교적 근본주의, 집단 의식과 배타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전성표, 2007: 58). 정순일·한내창(1998)에 따르면 종교가 주요한 사회 제도와 상치되거나 다른 집단과의 공존을 해치는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확산 시킨다면 갈등과 긴장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해보자면 첫째,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전수하는 규범이나 지식과는 상치되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경우, 둘째, 종교 밖의 사회·정치·경제 제도가 승인하는 국가관이나 직업윤리관에 모순되는 가치를 전달하는 경우, 셋째, 건강한 상식에 위배되는 미신이나 편견을 강조하는 경우, 넷째, 다른 종교나 제도를 배제하고 자기 종교만이 진실성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 다섯째, 전지구화의 흐름에 반하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신봉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단일한 사회문제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특성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구성원의 행동, 태도, 가치의 측면이다. 교육적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또 실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주체들의 사고와 가치,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적 다양성 혹은 종교적 갈등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7,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반 이상은 종교 갈등이 약간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4 참조). 이념 간 갈등이나 경제적 갈등에 비하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원만한 수준이었다(표 5 참조).

세대 간 갈등이나 계층 간 갈등에 비해 종교적 갈등은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보면 종교적 차이가 일상의 영역에서 배타와 차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에서 우리나라 시민은 13.5%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일본 32.6%에 비해서는 개방적이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에 비하면 폐쇄적인 수치가

표 4.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4점)점
2014년	3.4	36.7	47.6	12.3	2.7
2015년	4.5	39.9	42.6	13	2.6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5.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2015년)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	매우 심하다 (%)	평균(4점)점
종교 간	4.5	39.9	42.6	13	2.6
보수와 진보	0.6	12.6	48.9	37.8	3.2
남자와 여자	5.1	49.7	37.5	7.7	2.5
수도권과 지방	2.2	33.7	50.6	13.5	2.6
노인층과 젊은층	2.8	32.1	49.9	15.2	2.8
개발과 환경보존	1.7	23.7	56	18.6	2.9
근로자와 고용주	1.1	17.2	59.8	21.8	3
수도권과 지방	2.2	33.7	50.6	13.5	2.8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다. 덧붙여 같은 연구에서 인종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25.7%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31.8%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인종, 민족, 장애 여부, 계층, 종교, 언어와 같은 다양성 변수들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갖는다(Banks, 2014). 대개의 사람들은 각 변수에 따라 다수자적 지위와 소수자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어떤 이들은 소수자적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개신교 이주 여성 장애인의 경우 종교적으로는 다수자에 속하지만 성별이나 국적,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수자적 지위가 중첩되는 사람은 단순히 개별 소수자적 위치가 갖는 불리함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것이다. 즉, 소수 인종으로서의 위치와 소수 종교 신자로서의 지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두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 변수로 인한 불리함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가 흔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로 유입되는 이주민 중에는 역사적 공존의 경험이나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낯선 종교적 문화 속에 자란 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지닌 종교적 차이에 대한 낯설음이 국적 및 인종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과 결합된다면, 기존 우리 사회에서 간간히 드러나 왔던 종교인과 비종교인 갈등이나 주류 종교 집단과의 갈등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갈등 혹은 차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이 지닌 종교가 타 종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성표(2007)는 종교와 관련된 태도와 가치관이 종교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종교, 무교 등, 각 집단별로 종교적 배타성 요인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신교인들이 다원주의적 종교관이 가장 약하고 자기 종교에 대한 몰입도는 가장 높았다.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았을 때, 원불교 집단이 불교 집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단군 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일반적인 서구의 연구에서는 강한 종교성이 타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표 6.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 국제 비교

구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이웃으로 삼고 싶다(%)	사례 수
한국	13.5	86.5	4,000
일본	32.6	67.4	2,443
중국	9.2	90.8	2,300
미국	3.4	96.6	2,232
독일	14.1	85.9	2,046
러시아	14.4	85.6	2,492
호주	3.9	96.1	1,477

출처: 여성가족부(2015: 218)

종교적 몰입도나 다원주의적 종교관이 타종교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신교 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교 몰입도가 높을수록 자기 종교에 대한 편애가 증가하였다.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서도 개신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이주민 중 자기 종교에 대한 충실을 강조하는 무슬림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존을 위해 교육 및 국가 정책이 관여해야 하는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3. 학교 교육에서의 종교 관련 다문화 시민교육 현황

헌법 제20조 2항¹⁾에 따른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 제31조 4항²⁾에 다른 교육의 자율성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에서의 종교로부터의 중립 원칙이 성립한다. 교육기본법은 제6조 2항에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와 종교 간의 이 같은 관계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절대적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종교의 자유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신앙 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를 포함하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 종교교육이란 특정 종파의 교리를 선전하거나 포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표시열, 1995: 103).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적 상징이나 건조물,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서의 종교 관행, 형이상학으로서의 종교 윤리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형태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중립

1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종교 혹은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한정하고 있다. 민간의 종교 단체나 종교 기관이 행하는 종교교육은 신자 교육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 교육, 교리 교육인 경우가 많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은 민주적 이념에 준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교육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교육 현상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대표성이나 실질적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일 것이다.

1) '종교학' 교과에서의 종교

학교교육과정에서 종교는 무엇보다 교양과³의 독립교과로 존재한다.⁴ 2015 개정 교육과정⁵은 '종교학'교과의 총괄 목표로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

3 교양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환경과 녹색성장, 진로와 직업, 안전과 건강, 보건을 편성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이 교양 과목에 해당한다.

4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종교 과목만 개설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종교 학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비중은 10.3%이고, 선택한 학생은 3.5%이다.

과목명	선택 학교 현황	선택 학생 현황	교사 현황
생활과 종교(2009 개정교육과정)	240(10.3%)	66,273(3.5%)	229(3.6%)

자료출처: 교육통계 DB

선택 학교 비율=해당 과목 선택 학교수/전체고등학교수 X 100

선택 학생 비율=해당 과목 선택 학생수/전체 고등학생수 X 100

종교과 교사 비율=해당 과목 교사수/ 전체 교양과 교사수 X 100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다.

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부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종교적 의미와 인격 형성의 관계, 종교의 역할, 종교의 자유 등을 핵심으로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②교리·의례·조직 등을 핵심으로 종교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③종교의 인간관, 역사관, 자연관 등을 핵심으로 종교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④세계와 한국에서 전개된 여러 종교 전통의 생성과 변화, 종교 관련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종교사의 흐름을 이해한다. ⑤종교와 다종교 사회, 종교와 인권, 종교와 생명·과학, 종교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핵심으로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⑥개별 종교들의 교리와 실천 규범, 사회·문화적 실천,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별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성찰한다(교육부, 2015).

이상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종교학’의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7과 같다. 교과로서의 종교학은 인격 계발 혹은 심성 도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 교양의 한 요소로서의 영성(spirituality) 혹은 종교적 심성의 계발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다. 내용 요소는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갖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개인 학생들의 종교관 탐색과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표 7. 교양 교과 ‘종교학’의 성취기준

주제	성취기준
(1) 인간과 종교	[12종교01-01]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종교를 이해한다. [12종교01-02] 인간이 종교를 통해 여러 의미를 얻어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한다. [12종교01-03] 종교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종교의 역할을 이해한다. [12종교01-04] 종교의 자유권이 현대 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임을 이해한다. [12종교01-05] 정교일치 또는 정교분리, 교육과 종교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한다. [12종교01-06] 종교의 여러 통념을 종교의 자유 위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가.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p>(2) 종교의 구성</p>	<p>[12종교02-01] 사서삼경, 불경, 도덕경, 성경, 쿠란 등 경전의 형성 과정과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p> <p>[12종교02-02] 현재 진단과 미래 지향의 틀을 활용하여 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한다.</p> <p>[12종교02-03] 제사, 법회, 미사, 예배, 굿 같은 종교 의례의 진행 과정과 의미를 이해한다.</p> <p>[12종교02-04] 통과 의례, 치병 의례, 계절 의례, 수련 의례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p> <p>[12종교02-05] 주술과 축제, 일상적 종교 활동(기도, 연등 행사, 제사 등)과 가치관의 특성을 이해한다.</p> <p>[12종교02-06] 가족, 승가(상가), 교회(에클레시아), 움마, 단골 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p> <p>[12종교02-07] 성직자, 수행자(수도자), 일반 신도의 역할 구분과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p> <p>[12종교02-08] 종교 공동체의 다양한 책무를 이해한다.</p>
<p>(3) 종교의 세계관</p>	<p>[12종교03-01] 고통, 선과 악, 삶과 죽음, 운명과 자유 등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해한다.</p> <p>[12종교03-02]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종교의 견해를 이해한다.</p> <p>[12종교03-03] 종교적 인간관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종합되고 체계화되는지를 이해한다.</p> <p>[12종교03-04] 여러 종교의 역사관, 종말론, 우주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p> <p>[12종교03-05] 여러 종교의 생사관과 구원관 및 그 특징을 이해한다.</p> <p>[12종교03-06] 여러 종교의 자연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p> <p>[12종교03-07] 여러 종교의 생명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p>
<p>(4) 종교 전통과 문화 유산</p>	<p>[12종교04-01]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p> <p>[12종교04-02] 그리스도교(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등)와 이슬람교(수니파, 시아파, 수피즘 등), 유대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3] 하늘 신앙, 무속 신앙, 풍수신앙, 조상 숭배 등 고유 종교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4] 유교와 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5] 불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6] 그리스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7] 신종교(동학-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와 이슬람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p> <p>[12종교04-08] 세계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p> <p>[12종교04-09] 한국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p>
<p>(5) 현대 사회와 종교</p>	<p>[12종교05-01] 종교의 차이와 종교로 인한 차별의 구분을 이해한다.</p> <p>[12종교05-02] 다종교 사회에서 상호 공존을 위해 종교 차별 금지, 종교 간 평등 등의 필요성과 함께,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과 방식을 이해한다.</p> <p>[12종교05-03]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여러 종교의 현실을 이해한다.</p> <p>[12종교05-04]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교적·과학적 접근의 차이를 이해한다.</p> <p>[12종교05-05]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요청되는 역할을 이해한다.</p> <p>[12종교05-06] 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종교 현실을 이해한다.</p>

(6) 개별 종교들 의 이해	[12종교06-01] 개별 종교의 주요 교리와 실천 규범을 이해한다. [12종교06-02] 개별 종교의 주요 교리와 실천 규범에 담긴 여러 시사점을 이해한다. [12종교06-03] 개별 종교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의 내용(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 외교, 교육, 문화 예술 등)과 영향을 이해한다. [12종교06-04] 개별 종교가 지향하는 미래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을 이해한다. [12종교06-05] 종교인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 사회, 이웃 종교 등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이해한다.
--------------------------	-------------------------------------------------------------------------------------------------------------------------------------------------------------------------------------------------------------------------------------------------------------------------------------------------------------------------

있다. 즉, 교과로서 종교학은 사회 집단 구획 요소로서의 종교적 기능이나 그로 인한 경쟁·갈등·분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으며, 민주적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 종교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목의 정체성 자체가 교양과로서 성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사회과 교과에서의 종교적 다양성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 주제이면서 동시에 교과 측면에서는 사회과(social studies)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관찰된다. 문미숙·박창언(2009)은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다문화 정책 지정학교 중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학습지도안 1,23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과와 관련된 학습지도안이 총 322건(2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국어과가 320건(26%)을 차지했다.

Hunt & Metcalf(1968)은 종교가 사회과에서 '닫혀진 영역(closed areas)'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닫혀진 영역이란 일반인들이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신념과 행위의 영역으로, 편견과 타부가 개입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이성적 사고를 활용한 반성에 의거하여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교화,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토대로 전수된다. 종교는 이처럼 '닫혀진 영역'으로 공론화가 차단되고 터부시 되는 영역이다. Hunt & Metcalf는 이러한 닫혀진 영역을 이성의 영역에 노출시키고, 교실에

서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시민적 관용을 함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표 8은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종교 및 다문화를 다루고 있는 성취 기준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사회’과목과 고등학교의 ‘통합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과목이다. 한국지리, 사회문화, 세계지리는 선택과목

표 8.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종교와 다문화 관련 성취 기준

학교급	성취기준 및 해설
초등학교	<p>●사회(3~4학년) [4사02-06]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해설: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조손 가족 등)를 알아보고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탐색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p> <p>●사회(5~6학년)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해설: 의식주 문화를 소재로 인간 생활의 장소적 다양성을 탐색하고, 그것에 영향을 준 기후, 지형 등 자연적 요인을 비롯하여 종교, 전통 등 인문적 요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생활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육성하도록 한다 [6사 08-03]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해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사례(자원, 종교, 문화, 민족 등)를 조사하여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p>
중학교	<p>●중학교 사회 [9사(지리)04-01]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환경, 경제·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 한다 해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해 봄으로써 문화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의 형성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인식한다. [9사(일사)12-02]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해설: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p>

<p>고등 학교</p>	<p>●통합사회</p> <p>[10통사07-01]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p> <p>해설: 문화권은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표 공간을 의미하는데,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연환경은 기후와 지형을, 인문환경은 종교와 산업에 초점을 두어 다룬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은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한다.</p> <p>[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p> <p>해설: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을 다룰 때, 다문화 사회의 갈등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다루면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은 문화 다양성의 존중과 관련지어 모색하도록 한다.</p> <p>●한국지리</p> <p>[12한지06-03] 외국인 이주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p> <p>해설: 세계화 과정 속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제 이주 및 이주자들의 국내 정착 과정 및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공간적 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다양한 민족(인종)적, 문화적 혼종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문화 공간의 특성을 사례 지역을 통해 탐구한다. 나아가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이 요구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p> <p>●사회문화</p> <p>[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p> <p>●세계지리</p> <p>[12세지03-01] 세계의 주요 종교별 특징과 주된 전파 경로를 분석하고, 주요 종교의 성지 및 종교 경관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을 비교하고 해석한다.</p> <p>해설: 지역 단원을 배우기 앞서 세계 각 지역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에 내재하는 일반적 특징이나 보편적 원리를 학습하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인문지리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중 종교, 인구, 도시,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을 다루게 된다.</p> <p>[12세지04-03] 문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에서 보이는 민족(인종)이나 종교적 차이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최근의 지역 갈등과 해결 과제를 파악한다.</p> <p>해설: ... 최근 이 권역에서는 민족(인종)이나 종교의 차이와 관련된 지역 분쟁이나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된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최근의 지역 쟁점 및 과제를 파악하도록 한다.</p> <p>[12세지07-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분쟁 및 저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주요 요인을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와 관련지어 추론한다.</p> <p>해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이 지역의 분쟁이나 저개발 문제를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 등과 관련지어 추론하도록 한다.</p> <p>[12세사03-02] 고대 인도 왕조들의 성립과 발전을 알아보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등장한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인도 사회의 성격을 이해한다.</p>
------------------	------------------------------------------------------------------------------------------------------------------------------------------------------------------------------------------------------------------------------------------------------------------------------------------------------------------------------------------------------------------------------------------------------------------------------------------------------------------------------------------------------------------------------------------------------------------------------------------------------------------------------------------------------------------------------------------------------------------------------------------------------------------------------------------------------------------------------------------------------------------------------------------------------------------------------------------------------------------------------------------------------------------------------------------------------------------------------------------------------------------------------------------------------------------------------------------------------------------------------------------------------------------------------------------------------------------------------------------------------------------------------------------------------------------------------------------------------------------------------------------------------------------------------------------------------------------------------------------------------------------------------------------------------------------------------------------------------------------------------

에 해당한다. 지리·역사·일반사회의 내용 영역을 통합하는 사회과에서 종교는 필수적인 내용 요소로 포함되어 왔다. 종교는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현상의 분포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치·문화·외교·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따라서 사회과의 내용 요소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과 분포와 서양 중세와 근대에서의 종교사적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Hunt & Metcalf가 말한 사회적 행위자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신념과 행위의 영역’으로서의 종교는 의도적으로든 혹은 비의도적으로든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종교적 배타와 편견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다른 사회 갈등에 비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거나, 다른 문화권이나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집단이나 문화적 지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로 제시된다. 그러한 구분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의 예도 세계사적, 국제적 이슈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즉, 종교적 갈등이나 분쟁은 과거의 일이나 외국의 일인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때의 어떤 내용의 ‘갈등’을 다룰 것인가는 교과서 집필자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재량권에 맡겨진다.

4. 종교적 다양성 심화 시대의 다문화 시민교육을 위한 제언

세계사의 전개나 문화 현상의 분포, 최근 다양한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갈등·테러·폭력사태·소요사태 등에 종교가 관여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하자면 종교는 교육의 중요 주제가 됨이 마땅하다. 또한 시민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이 날로 심화되는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공존·연대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종교

는 문화적 다양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어떤 다양성 요인보다 강한 사회 분열과 갈등 유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는 사회 갈등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을 토론하고 종교적 관용성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현상으로서의 종교 갈등과 교육 목표로서의 종교적 관용은 학교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최근 종교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갈등 현상은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으며 종교 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확대, 기성 종교 집단의 급진화 혹은 보수화, 종교 교리와 관련된 주제들의 정치 쟁점화, 사회와 국가의 종교적 다양성 증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간의 간극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적 관용성은 이른바 세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을 공유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날로 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 사회의 다수 종교가 아닌 낯선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가치, 행동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 차이의 경험 혹은 낯선 것과의 접촉은 그 자체가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가능하고, 가시적이며, 통제가능하고 일시적인 차이와의 만남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부담이 적다. 반면 예측이 어렵고, 암묵적이며,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접촉은 정서적인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게임이나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 거리가 붐비고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빈번하게 만나는 것은 크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피부색, 모국어, 종교 등이 다른 직장 동료나 학급 친구와 더불어 생활해야 하는 것은 평소 당연시 여겨 왔던 식습관이나 에티켓, 신체 언어, 시간 개념 등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관련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낳기 쉽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Grant & Sleeter(2011)가 말하는 문화의 빙산 개념

(The Iceberg Concept of Culture)이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처럼 문화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의 것과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심층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보다 중요하고 많은 부분은 표층 아래에 감춰져 있다. 음식, 의상, 예술, 드라마, 공예, 댄스, 문학, 기념일 등은 표층에 해당한다. 이는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시간 개념, 사적 공간의 범위, 얼굴 표정, 비언어적 의사소통, 몸짓언어, 신체 접촉의 규범, 미의 개념, 동물과의 관계, 이상적인 자녀 양육, 질병에 대한 인식, 연장자에 대한 태도, 위생 관념, 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호도, 이상 행동의 정의 등은 쉽사리 파악되지 않기에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있어 보다 빈번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심층 영역의 문화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몸짓은 문화 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몸짓 언어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만 효과적으로 통할 수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거나 나와는 다른 상대의 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몸짓 언어의 소통 실패가 상호간의 오해나 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로 인한 갈등의 문제와 관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과거사나 해외의 일이 아니라 시민적 일상의 맥락 속에서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전지구적으로나 한국사회 내적으로나 종교적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종교간 대화 및 상생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문제이다.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거절하거나 배척할 때, 민족의 분열,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국가 분리 등 부정적이며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다원적 종교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다원적 종교상황에서 사회적 통합과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종교간 상호 공존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고등학교교양교과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류성민, 1994,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집문당.
- 문미숙·박창언, 2009, 다문화 연구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 분석, 초등교육연구, 22(2), 363-386.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2015, 201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안국진·유요한, 2010, 한국 내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 종교와 문화, 19, 181-206.
- 여성가족부, 2015, 일반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이정덕·김미경, 1995, 가족내 종교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213.
- 전성표, 2007, 한국사회 종교 갈등의 잠재력-타종교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용도 비교, 종교연구, 49, 55-87.
- 정순일·한내창, 1998, 종교간 잠재적 갈등요인(편견)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6, 141-166.
- 통계청, 2016, 보도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 항목'(2016. 12. 19).
- 표시열, 1995,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주요 쟁점, 안암 법학, 3, 89-114.
- Banks, J. A., 201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Pearson.
- Grant, C.A., & Sleeter, C.E., 2011, *Doing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chievement and equity* (2nd ed.), NY: Routledge.
- Hunt, M. P. & Metcalf, L. E., 1968, Rational Inquirey on Society's Closed Areas, In Walter C. Parker (ed.)(1995). *Educating the Democratic Mind*. Suny Press.

2016.12.22 투고일, 2016.12.23 심사일, 2016.12.27 게재확정

Current Status of Citizenship Education for Religious Tolerance in Korean National Curriculum

Jeong-Soo 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religious diversity of Korean society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education for religious tolerance. There have been the three major religions-Protestantism, Buddhism and Catholicism-in Korea.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s growing rapidly, Korean citizens are now living in the religiously diverse society unprecedented in history.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does not deal with religious issues such as religious conflict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life. Religious matters are usually exposed to students as historical events or one of the global issues.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s focused on the conflict-solving in the real public life are needed for preparing students with religious tolerance.

Keyword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Diversity,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Religious Tolerance

* Seoul University, Lecturer, Social Studies Education, withmyo@naver.com